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8/17~2026/08/23]

2026.08.24

[로봇] 이제는 데이터 축적도 견제하는 미국

- 현대차, 양산 위해 부품 공급망 4Q 확정 전망. 조지아에는 로봇 훈련소 개소
- 엔비디아와 LG전자 협력 가속. 데이터 구축 협력
- 유니트리 로보틱스 IPO 완료. 상장 당일 6배 급등 후 조정 흐름

[방산] 7월 방산 수출 동향

- 한화, 미국 자주포 시제 계약 수주. 미국 방산 사업 본격화
- UG D&A의 자폭정과 풍산의 드론 킬러가 방사청 신속 시범 사업 선정. 미래 무기 개발 가속
- 미국, 패트리엇에서 멈추지 않는다. GMLRS와 토마호크도 대규모 계약

[조선] 다시 다가오는 특수선 수출

- 한화엔진, 창원에 중속 엔진 공장 준공. 연 900MW CAPA 확보
- HD현대중, 페루 잠수함 내년 착공 목표. 창사 첫 잠수함 수출 가시화
- 미국 조선 진출 위한 법인 설립 가속. 한화와 HD한국조선해양 각각 현지 법인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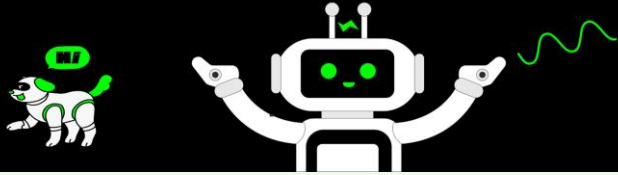
[항공] LCC 3사 합병

- 한진그룹 계열 LCC 3사 합병 확정, 내년 3월 '통합 진에어' 이륙
-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14 → 21단계, 유가 25% 급등 여파
- 12월 통합 대한항공 아시아나, 시간대·신규노선 확대한다

[해운] 순항 지속

- 올 상반기만 2.3조 투입, 선박 확충 큰 그림 그리는 HMM. 2030년까지 29조 투자
- 대만 컨테이너 3사 모두 2분기 이익 증가, 운임 회복으로 실적 개선
- 기니 시만두 철광석 운송 VLOC 주도, Capesize 상승 제한 우려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이제는 데이터 축적도 견제하는 미국

미국 USSC가 중국의 피지컬 AI 데이터 축적 역량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내며, 미국도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 로봇 경쟁은 이제 데이터 축적 경쟁으로 확대 중.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38)

[이제는 데이터 축적도 견제하는 미국]

-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SC)가 미국 정부에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 수립을 촉구. 중국이 제조·물류·로봇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기업·운영·실물세계데이터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축적하고 있으며, AI와 로보틱스 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
- 중국은 오픈소스·저비용 AI 모델을 산업현장에 빠르게 배치하고, 제조·로봇 현장에서 작업·행동 데이터를 대량 생성한 뒤 다시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구조. 미국의 GPU 수출통제가 Frontier model 학습은 견제할 수 있어도, 중국 내 제조현장에서 생성되는 실물 데이터까지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데이터 격차가 더 중요.** '누가 더 로봇을 잘 만드느냐'가 아닌 '누가 더 많은 로봇을 배치해 더 많은 데이터를 얻느냐'의 경쟁으로 이동 중.

Key Chart: USSC가 제기한 중국 로봇 데이터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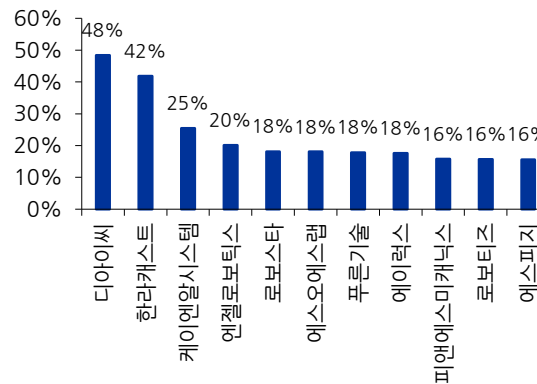
문제점	내용
① 실물 데이터 축적 우위	중국은 제조·물류·로봇의 대규모 현장 배치를 통해 Real-world 상호작용 데이터를 지속 확보
② 데이터 플라이휠 형성	로봇 배치 → 행동데이터 생성 → 모델 개선 → 성능 향상 → 추가 배치가 반복되는 "Loop" 구축
③ 제조업 규모	세계 최대 제조기반과 IoT·5G 인프라가 공장·물류망 등에 수많은 데이터 수집 포인트 제공
④ 로봇 데이터 생태계 확산	AgiBot 등이 로봇 학습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중국 Embodied AI 생태계 전체가 데이터 혜택을 공유
⑤ 美 규제로 막기 어려움	Physical Data 축적은 차단하기 어려움
⑥ 데이터 접근 비대칭	중국 AI는 글로벌 오픈 생태계의 데이터·피드백을 활용하는 반면, 중국의 데이터보안 규제로 중국 내부 데이터의 해외 반출·접근은 제한
⑦ 美 정책 공백	미국은 Frontier Model·Compute 지원에 집중. 제조·로봇 배치를 국가적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정책 부족

자료: USSC,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8/17~08/23)

[전통 로봇]

- HD현대로보, 현대차 中 공장 로봇 통합 솔루션 구축

[휴머노이드]

- 로브로스,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9대 동시 공급

[부품/SW/기타]

- 국내 로봇 상장사 상반기 매출 9.8% 증가
- BD, 2달간 부품사 실사. 4분기 공급업체 선정
- 현대차, 조지아에 현대차 로봇 훈련소 RMAC 개장
- LG전자·엔비디아, 12년치 로봇데이터 만든다
- 삼성전자 DX, 글로벌 로봇 전문가 채용 돌입
- 레인보우로보·빅웨이브로보, 북미 자동화 시장 공략
- 레인보우로보틱스, 삼성전기 기술임원 영입
- 메디슨 황, 베이징 WRC 로보틱스 부스 찾아

[글로벌]

- 유니트리 로보틱스 IPO 첫날 6배 상승 기록
- 유니트리 "이르면 2~3년 내 '로봇 챗GPT' 시대 온다"
- 中 휴머노이드, 정부가 사고 업체는 데이터 되사
- 'WRC 2026' 19일 베이징서 막 오른다
- 中 로봇 100m 9초39 기록.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
- 중국 휴머노이드 '올해 10만 대' 양산 전망
- USSC, 미국에 국가 데이터 전략 촉구
- 테슬라 옵티머스 2027년 하반기 판매 추진
- 보스턴다이나믹스, 포드 출신 공급망 고위책임자 영입
- 뉴라로보틱스, 보쉬렉스로스 자율이동로봇 사업 인수
- 소프트뱅크, 스위스 건설로봇 스타트업 2억달러 투자



Weekly Keyword

7월 방산 수출 동향

6월에 이어 견조한 방산 수출 흐름 확인. 전차 등 주요 체계 수출 확대가 뒷받침. 하반기에는 전차 및 자주포, 다련장, 탄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수출 지속되며 견조한 흐름을 기록할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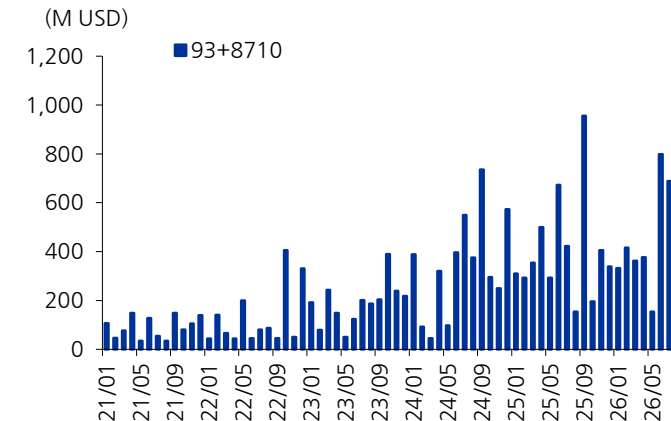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86)

[7월 방산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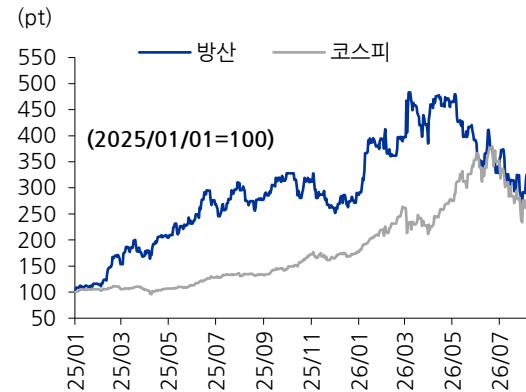
- 7월 방산 수출은 6.88억달러(+63% YoY, -14% MoM)를 기록하며 전월 급증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유럽향 K-2 전차 수출 물량이 이어지고, MENA향 자주포 관련 부분품 출하가 재개되며 전체 수출을 뒷받침한 것으로 파악됨. 탄은 주력 수출 지역 외에 동유럽 지역으로의 대규모 출하도 확인.
- 하반기 들어 K-2 등 대형 플랫폼 물량 반영이 재개되며 연초 대비 수출 흐름은 확연히 개선되는 모습. 남은 기간에도 자주포, 전차, 다련장, 탄 등 주요 체계 수출 지속되며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질 전망.

Key Chart: 방산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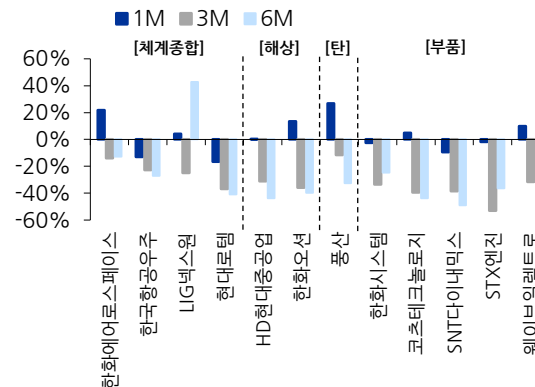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08/17~08/23)

[수주/계약]

- K-9 차륜형, 미 차세대 자주포 시제품 사업자 선정
- 말레이, 남중국해 압박에 KF-21 36대 조기 도입 추진
- 10월 1.9조 KF-21 장거리공대공 개발 업체 선정
- LIG의 자폭정과 풍산의 드론 킬러 신속 시범 사업 선정

[기업별 이슈]

- 한화디펜스USA, 인수 대상 기업 CFO 영입
- 한화 "美 육군에 이르면 내달 K9 자주포 첫 인도"
- 한화, 미국 자회사 유증 4,150억원 규모 참여
- KAI 노조, "수직계열화, 경쟁력 보장 못해"
- 현대로템, 폴란드에 K2 창정비·생태계 전수
- 현대로템, 연말까지 '현대위아 방산 특수사업부' 인수
- 웨이브일렉트로닉스, LIG D&A 최우수 협력사 선정

[기타]

- LG엔솔, 美 방산 드론 공급망 진입 검토
- 이광형 "K방산, 첨단무기는 후진국"
-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의 군사 훈련 축소 지시
- 방산 비리 의혹에 전자전기 체계개발 재검토 가능성

[글로벌]

- 미 육군은 2034년까지 GMLRS 13.3만발 요청
- 레이시온, 229억 달러 규모 토마호크 계약 체결
- 라인메탈, 장갑차와 스카이레인저 인도 인도 지연
- 스위스, 방공망 강화 위해 12억달러 추가 예산 요청
- 영국, 무기 및 탄약 관련 일자리가 51% 증가



Weekly Keyword

다시 다가오는 특수선 수출

캐나다 잠수함 이후 다시 한 번 특수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 HD현대중공업의 페루 잠수함 2척, 한화오션의 태국 호위함 1척 수주 사업이 막바지 단계로 진입하는 중.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6)

[다시 다가오는 특수선 수출]

- 캐나다 잠수함 이후, 국내 조선사의 특수선 수출 파이프라인이 동시에 막바지 단계로 진입.
- HD현대중공업은 페루 해군의 1,500t급 차세대 잠수함 2척 사업에서 올해 11월 기본설계를 완료한 뒤 선도함 건조 본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성사 시 **창사 이후 첫 잠수함 수출**이 됨. 2027년 착공 목표.
- 한화오션도 태국의 4,000t급 차세대 호위함(1척, 약 8,000억원) 사업에서 수주에 근접.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나반티아·ST엔지니어링·튀르키예 업체 등 6개사가 참여했으며, 현지에서는 **한화오션이 기술평가를 통과한 최종 후보로 선정돼 정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 최근 불거진 과거 푸미폰 아둔야뎃함 설계결함 의혹도 태국 해군이 직접 일축. 해당 함정의 엔진 교체는 독일산 주 추진기관 문제이며, 한화오션의 선체설계 결함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 차기 호위함 수주의 잠재적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

Key Chart: 페루 잠수함, 태국 호위함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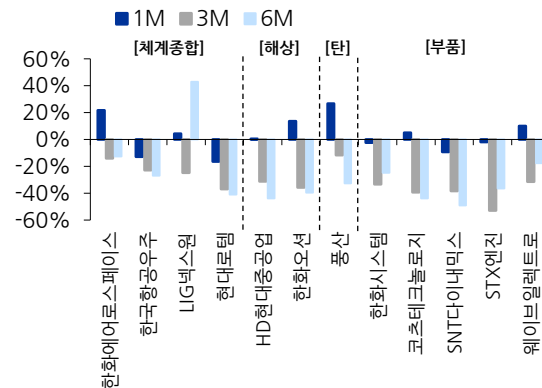
사업	내용
페루 차세대 잠수함	도입 목적/규모: 노후 잠수함 대체. HDS-MGP 1,500t급 2척 추진 예산: 미공개 사업구조: HD 현대중공업-페루 국영 SIMA 공동개발 일정: 2025.12 공동개발 계약 → 2026.07 기본설계 완료 → 상세설계-선도함 건조계약 추진
태국 고성능 호위함	도입 목적/규모: 노후 호위함 대체. 4,000t급 1척, 2037년 8척 체계 목표 예산: 7,000~8,000억원 사업구조: 한화오션 등 6개사 참여. 태국 내 작업 20% 이상·기술이전 요구 일정: 2026.4 제안 마감 → 7월 평가 완료 → 최종 승인·낙찰 공고 대기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8/17~08/23)

[상선/해양]

- 한화엔진, 창원에 선박 발전용 중속엔진 공장 준공

[특수선]

- HD현대 '중대형 무인 함정' 내년 초 미서 시연
- HD현대중, 페루서 신형 상륙함 '침보테함' 진수
- HD현대중 페루 잠수함, 창사 후 첫 수출 눈앞
- 태국 軍 당국, 한화 설계 결함 의혹 일축

[기타]

- 한화, 美 조선 지주사 또 만들어. 오스탈USA 인수 포석
- HD현대중공업 '끼임 사망' 반박
- HD한국조선해양, 미국에 투자법인 설립
- HD현대중, 美 서·남부 조선소 2~3곳 인수 후보로 압축
- HD현대중, 인도 코친조선소 블록공장 합작 접는다

[글로벌]

- HD현대 2척 발주한 레이. 1조원대 후속 물량 中으로
- 대만 완하이라인, 1.1만TEU급 中에 컨선 6척 발주
- 美 군함 2척 건조, 현대·미쓰비시 경쟁 유력
- 나무라조선, 대형 도크를 사가·이마리에 신설
- TKMS, 加 잠수함 납기단축 분할건조 추진



Weekly Keyword

LCC 3사 합병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2027년 3월 국내 최대 규모 LCC '통합 진에어' 출범 예정. 건조한 여객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규모의 경제·노선 효율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제고 기대. 장기간 소외된 LCC에도 다시 주목할 시점.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6)

[LCC 3사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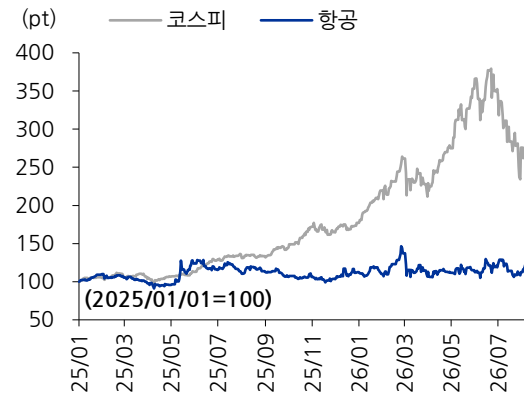
- 8/21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3사간 합병 계약을 체결.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 12월 각각 임시 주총을 거쳐 2027년 3월 17일 '통합 진에어' 출범 예정. 2025년말 기준 3사 보유 기단은 총 58대(진에어 31대, 에어부산 21대, 에어서울 6대)로 티웨이항공 46대, 제주항공 45대를 상회하며 국내 최대 규모 LCC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
- 이번 통합을 계기로 국내 LCC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 건조한 여객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2Q26을 저점으로 실적은 점진적인 회복 구간에 진입. **중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노선 효율화를 통한 '통합 진에어'의 원가 경쟁력 제고도 예상됨.** 여행 수요 증가 속 LCC 외형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주가는 장기간 소외된 만큼, 항공 산업 재편과 실적 턴어라운드에 따른 재평가를 기대.

Key Chart: '통합 진에어' 출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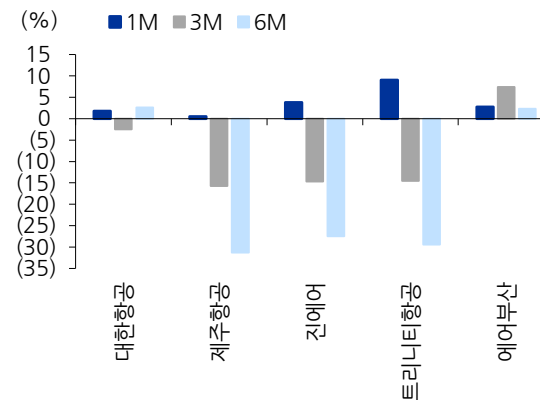


자료: 투어코리아,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8/17~08/23)

[여객/화물]

-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14→21단계, 유가 급등 여파
- 중동 지고 아시아 뜬다, 전쟁에 뒤바뀐 항공 '환승 허브'
- 반도체가 바꾼 수출 물류, 항공화물 늘고 중량화물 줄어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아시아나 미사용 마일리지 합산 4조원 돌파
- 대한항공·아시아나 12월 통합, 시간대·신규노선 늘어났다
- 대한항공, 무인기 납품지연 소소 2심서도 일부 승소
- 대한항공 AI·클라우드 기술 활용 정비결함 분석 시스템 구축
- 아시아나항공 김포 격납고 짐 싣다, 새 주인 제주항공 유력
- 한진그룹 LCC 3사 합병 확정, 내년 3월 '통합 진에어' 출범
- 제주항공 환승객 10만명 돌파, 중국인 74% 급증
- 제주항공, 엔진 제작사 독점 벗어나 핀란드 GATES와 계약
- 트리니티항공, SSC 신전략으로 'LCC 진화판' 노린다
- 이스타항공 차세대 항공기 B737-8 도입, 기단 21대로 확대
- 파라타항공 미주노선 판매 허가 완료, 아시아나 빈자리 경쟁
- 에어로케이항공, 중국 베이징·청두 정기노선 취항 본격화

[기타]

- 인천공항, 중동 변수 딛고 세계 하늘길 '첫 1위'
- 급할 때마다 티켓 대란, 제주 필수항공노선 추진

[글로벌]

- 홍콩 공항, 카타르항공 화물부문과 네트워크 연계 강화
- 구글, 스피릿항공 '실무 데이터' 140억원에 싹쓸이



Weekly Keyword

순항 지속

HMM, 팬오션의 2Q26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며, 해운 업계에 대한 눈높이를 상향. 건조한 물동량과 중동 지정학 리스크 장 기화로 3Q26에도 양호한 실적 흐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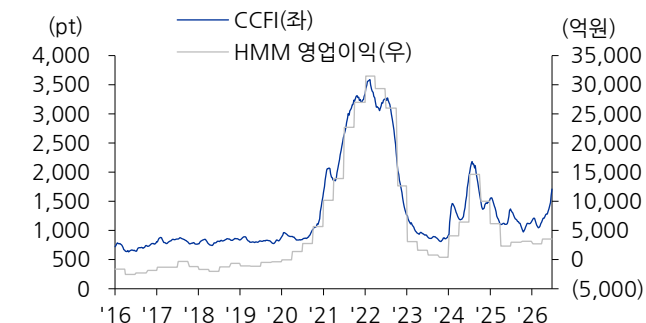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9)

[순항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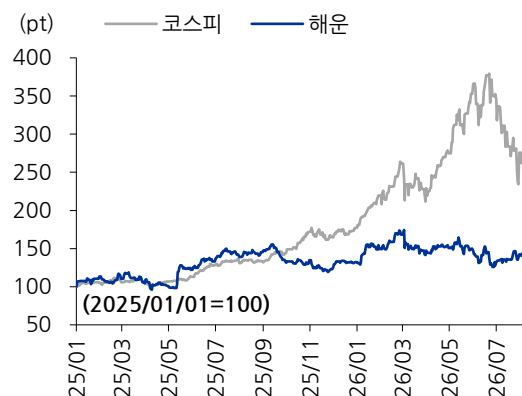
- 2Q26 국내 해운사(HMM, 팬오션)의 호실적 확인. 영업이익 기준 HMM 3,541억원(+52%yoy), 팬오션 1,937억원(+57%yoy)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 해외에서도 Maersk를 중심으로 2Q 이익 서프라이즈와 연간 가이던스 상향이 이어지며 **업황 눈높이가 높아지는 모습**. 신조선 인도 부담에도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며 운항 비효율과 톤마일 증가로 컨테이너/벌크/탱커 운임은 전반적으로 견조한 상황**.
- 3Q26에도 양호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전망. 컨테이너는 선사들의 공급 조절로 HMM 실적과 동행하는 CCFI는 1,822pt로 높은 수준을 유지. 벌크도 견조한 물동량을 바탕으로 BDI 강세 지속, 탱커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에 따른 우회 운항으로 톤마일 증가 효과가 이어지는 모습. 높은 운임과 견조한 물동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운 업종에 편안하게 접근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

Key Chart: HMM 영업이익, CCF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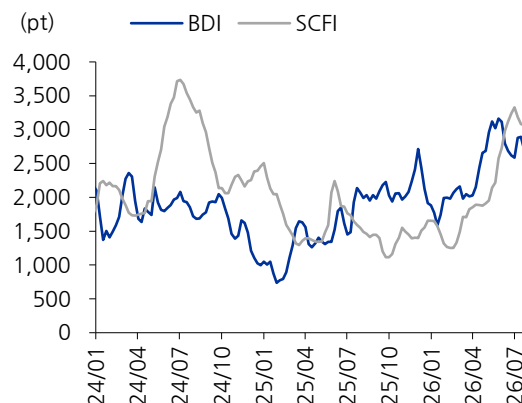


자료: Quantivise,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iv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8/17~08/23)

[벌크선]

- 기니 시만두 철광석 운송 VLOC 주도, Capesize 상승 제한
- 2026년 들어 Capesize 5TC 평균 용선료 +81%yoy 상승
- 러우 전쟁으로 지난 5주 글로벌 곡물 출하량 -8%yoy 감소

[탱커/가스선]

- 대한해운, 2분기 영업이익 630억원으로 +91%yoy 증가
- KSS해운, 2분기 매출액 1,599억원으로 +14%yoy 증가
- 미 해군 호르무즈서 유조선 은밀히 호위, 1,000척 이상 지원

[컨테이너선]

- Hapag-Lloyd 최종 흑자전환, 4~6월 운임 상승-수요 회복
- Hapag-Lloyd, ZIM 인수절차 2026년말까지 완료 예상
- 대만 컨테이너선 3사 모두 운임 회복으로 2분기 실적 개선
- 올 상반기만 2.3조 투입, 선박 확충 큰 그림 그리는 HMM
- 에버그린-HMM, 극동 북유럽 노선 소수 항만에 집중
- HMM 상반기 탄소비용 411억원, 친환경 선박 확대 대응
- 7월 아시아북미 컨 운송량 올해 처음으로 180만TEU 상회

[기타]

- 슈퍼 엘니뇨에 현대글로벌비스 철도 운송 '새 돌파구'
- SK해운 선박, 파나마 운하 '매직패스' 65억에 샀다
- 미-이란 교착상태로 호르무즈해협 안보상황 악화
- 사우디, 걸프지역 항행자유수호 국제연합 창설 추진
- 중국 핑루 운하 9월 공식 개통 앞두고 시험운항 완료
- 한국 최초 북극 북동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 실시